

털부처꽃의 지피용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몇가지 요인

연수호¹, 이상인², 정미진³, 조주성⁴, 이철희^{4*}

¹충북대학교 축산·원예·식품공학부 대학원생, ²국립수목원 유용식물증식센터 석사후연구원,
³국립수목원 유용식물증식센터 연구사, ⁴충북대학교 축산·원예·식품공학부 교수

Several Factors Affecting Cultivation of *Lythrum salicaria* L. as Ground-cover Plants

Soo Ho Yeon¹, Sang In Lee², Mi Jin Jeong³, Ju Sung Cho⁴ and Cheol Hee Lee^{4*}

¹Graduate Student, Brain Korea 21 Center for Bio-Resource Development, Division of Animal,
Horticultural and Food Sciences,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²Post-Master's researcher, Useful Plant Resources Center, Korea National Arboretum

³Researcher, Useful Plant Resources Center, Korea National Arboretum

⁴Professor, Brain Korea 21 Center for Bio-Resource Development, Division of Animal,
Horticultural and Food Sciences,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털부처꽃(*Lythrum salicaria* L.)은 예로부터 발효해서 술로 마시고, 잎은 채소로 식용하며, 식중독 치료 및 설사를 멈추게 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 중국, 아프리카, 유럽, 북아메리카 등의 습한 지역에 분포하며, 7~8월에 취산꽃차례로 붉은 자주색의 꽃이 핀다. 본 연구는 털부처꽃을 지피용 소재로 개발하기 위한 최적의 재배기술을 확립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재배방법의 확립을 위하여 2019년 4월 27일에 파종하여 생산된 유묘를 7월 4일에 정식하여 9월 24일까지 12주 동안 재배하였다. 공통 조건은 3치 비닐 포트에 원예상토를 충진하고, 200구 트레이에 셀당 1립씩 파종하여 생산된 1셀 묘를 정식하였으며, 추비, 차광, 적심 등은 처리하지 않았다. 추비 실험은 hyponex 하이그레이드(N-P-K, 7-10-6)를 0, 500, 1000, 2000mg·L⁻¹를 4주간 간격으로 총 3회 엽면시비 하였다. 차광 정도 실험은 0, 35, 55, 75% 차광막을 이용하였으며, 적심은 무적심과 4주차에 1회 적심처리 하였다. 연구의 결과, 털부처꽃은 추비 농도가 증가할수록, 생육이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다. 차광처리 별로는 무차광 조건에서 생육이 가장 왕성한 결과를 보였고, 광량의 부족은 전반적으로 생육을 억제하는 경향이였다. 적심 처리는 줄기 신장을 크게 억제하였으며, 측지수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보였다. 엽수는 무처리와 비교하였을 때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털부처꽃은 적심을 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적심 시기에 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추비처리는 털부처꽃의 생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므로 처리하지 않고, 무차광 조건에서 재배하는 것이 전반적인 생육에 유리하였다. 또한 도장이 잘되는 식물임으로 적심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어: 야생화, 부처꽃과, 추비, 차광, 외화제

[본 연구는 국립수목원 유용식물증식센터 “신 관상식물(new ornamental crops) 고품질 재배 기술 개발, KNA 19-C-53”의 사업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E-mail: Leech@cbnu.ac.kr, Tel: +82-43-261-2526